

Best Partner
For Your Success

ZENIEL 2026 SUMMER
VOL.111

제니엘





환자이송 시스템

MediLook(환자이송시스템)은 OCS·EMR연동과 실시간 이송 관리 기능을 기반으로 환자 이송 요청부터 배정, 진행, 이력 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화하여 업무 지연을 줄이고, 인력 운영 효율과 병원 전체의 운영 생산성을 높이는 시스템입니다.

이송이 바뀌면, '운영 속도'가 달라집니다

진료 차질과 운영 리스크까지 확대되는 이송 지연 문제

효율적인 이송 관리는 진료 흐름, 인력 운영, 병상 회전율까지 연결되는 핵심 운영 요소입니다.

시장 현황

01 강화되는 법·규제 대응

2026.03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병원 내 인력 운영에 대한 관리 책임과 대응 부담 증가

02 비효율적인 이송 구조

전화·구두 중심의 이송 요청으로
지연·누락·대기 발생 및 실시간 현황 공유 한계

03 운영 인력 측정의 어려움

병원 업무 운영 과정에서
필요 인력 및 업무 수요에 대한 측정 불가

기대 효과

법적 리스크 최소화

시스템 기반 이송,이력 기록 자동화
위장 도급 및 노무 리스크 사전 차단

업무 생산성 향상

실시간 이송 요청, 배정 시스템 등
불필요한 대기/업무 시간 감소

효율적인 인력 운영

데이터 기반 이송량 분석
인력 배치 및 운영 최적화

CONTENTS

2026 SUMMER Vol.111

ZENIEL FAMILY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3고객센터 고품질 상담으로 국민 권익을 보호하다	04
제니엘시스템 인천지사 타협 없는 정확성, 한계 없는 친절	08
한국환경공단 유해화학물질 콜센터 유해화학물질 행정의 든든한 길잡이	12
한섬 기흥물류센터 함께 만든 변화, 효율성을 높이다	16

ZENIEL STORY

CEO LETTER 새로운 시대, 새로운 리더십으로	20
제니엘그룹 명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3고객센터 이경선 센터장	24
CONGRATULATIONS 2026년 2분기 우수사원	27
TREND 좋은 프롬프트 작성법	28
SAFE KEEPER 안전보건 우수사원	30
ZENIEL NEWS	31

04



08



12



16



발행일 2026년 6월 26일 발행인 박인주 발행처 (주)제니엘 www.zeniel.com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402 제니엘빌딩 TEL 02. 580. 0114 FAX 02. 580. 0104
전략기획실 jminsoo7083@zeniel.co.kr 기획·편집 PEOPLE PAGE(대표번호 02. 6674. 0111)
사보 <제니엘>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필자의 의견이며, 제니엘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제니엘>에 실린 글과 사진은 사전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고품질 상담으로 국민 권익을 보호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3고객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사회보장제도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이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까지 뒷받침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는 관련 제도를 국민에게 정확히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나침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건강보험을 대표한다’ 자부심으로 이룬 성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전국 7개 권역에서 12개의 고객센터를 운영 중이다. 고객센터에서는 건강보험과 관련된 가입자 자격, 보험료, 보험급여, 의료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주로 진행한다. 경인3고객센터를 책임지는 이경선 센터장은 단순한 전화 응대를 넘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사명감으로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의에 성심성의껏 응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희는 사회보장제도 최일선에서 폭넓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루 평균 7~8천 건에 달하는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 지급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처럼 정부 지원금 상당수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 관련 문의도 많은 편입니다.

간혹 제도에 대한 불만을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 친절하고 정확하게 안내해 이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마음가짐은 뛰어난 성과로도 이어졌다. 제니엘은 2020년부터 경인3고객센터를 맡아왔는데, 제니엘 직원들은 전국 고객센터 가운데 최상위 수준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6년간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높은 순위의 전화 친절도와 고객 만족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며, 공단으로부터 우수 협력사로 인정받아 2021년부터 5년 연속 이사장상과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경선 센터장은 탁월한 센터 운영을 바탕으로 올해의 제니엘그룹 명장으로도 선정됐다. 눈부신 성과의 비결을 묻자, 이경선 센터장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강조했다.

“직원들에게 늘 강조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고객과의 신뢰를 위해 정확성과 성실함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리가 건강보험의 목소리를 대신한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전화를 받는 업무를 넘어 국민의 어려움을 가장 먼저 듣는 전문 상담사로서 진심 어린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끈끈한 결속력, 나눔으로 이어지다



경인3고객센터의 성과는 단순한 업무 지표에만 머물지 않는다. 제니엘 직원들은 공단이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은 물론,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공단과 제니엘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공공기관 콜센터로서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매달 노인복지관에서 직원들과 함께 배식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분들에게 주 2회 전화를 드리는 ‘건강 드림콜’ 서비스에도 많은 직원들이 지원해, 여러 차례 우수 센터와 우수 봉사자로 선정됐어요.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시작했던 직원들도 활동을 이어갈수록 더 큰 보람과 위로를 얻고 있습니다.”

이는 직원들 사이 끈끈한 결속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경인3고객센터 직원 130명 가운데 5년 이상 근무한 장기근속자의 비율은 65%에 달한다. 직원들이 오랜 기간 한 곳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었던 동력 역시 서로의 어려움을 살피고 복돋아 주는 경인3고객센터만의 따뜻한 조직 문화에 있었다.

“가장 큰 원동력은 서로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다독여주는 ‘가족 같은 유대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업무 특성상 책임감이 막중하고 어려움이 생길 때도 많지만, 내 것처럼 돕는 동료들이 있기에 고비마다 함께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제니엘 차원의 지원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안마의자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비접촉 진단 키오스크처럼 업무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장기근속 직원을 위한 포상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어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신뢰와 성과가 선순환하는 센터

공단 역시 경인3고객센터에 두터운 신뢰를 보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 고객센터는 제도 변경이나 시스템 오류, 긴급 재난 등의 상황에서 문의가 몰리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일수록 신속한 초기 대응과 안정적인 현장 운영이 중요한데, 경인3고객센터는 돌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대응하며 운영 역량을 입증해 왔다.

“고객들의 전화가 폭주하는 시기나 신규변경 업무가 도입되는 때, 저희의 팀워크가 더욱 빛을 발합니다. 상담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필요한 인력을 예상해 근무 일정을 조정하고, 새로운 업무가 도입되거나 제도가 변경될 때는 사전 교육을 통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공단에 서도 경인3고객센터는 언제나 신속히 대응하고 현장의 분위기도 밝아 믿음이 간다고 평가해 주세요. 저는 이러한 긍정적인 에너지가 결국 좋은 업무 성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꿈꾸는 경인3고객센터는 따뜻한 소통과 고객사의 신뢰, 그리고 최고의 성과가 선순환하는 곳입니다. 직원들이 서로 힘이 되어주고, 그 힘이 좋은 서비스로 이어져, 고객사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는 조직을 만들고 싶습니다. 훗날 경인3고객센터가 ‘공공기관 고객센터 운영의 표준이자 최고의 성공 사례’로 기억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과거 콜센터는 대부분 경직된 분위기 속에서 지나친 경쟁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경선 센터장은 이러한 폐단에서 벗어나, 관리자가 직원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힘써왔다.

이경선 센터장이 그리는 경인3고객센터의 미래 역시 ‘사람’과 ‘신뢰’, ‘성과’가 유기적으로 맞물리는 곳이다. 상담 업무는 고객의 어려움과 불편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는 일인 만큼, 직원들의 부담도 적지 않다. 그렇기에 서로 소통하며 위로와 응원을 나누고, 내부에서 채운 에너지를 다시 고객에게 따뜻한 서비스로 돌려주는 조직을 만들고 싶다는 것이 이경선 센터장의 바람이다.

MINI INTERVIEW

현장관리자 TALK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3고객센터 이경선 센터장

“우리가 만드는 작은 변화들이 모여 더 큰 성과를 만든다고 믿습니다. 올 상반기도 우리가 설정한 목표를 함께 달성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운영과 관련된 아이디어가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고객센터의 표준이
되는 날까지!



왼쪽부터) 윤지현, 이경선 센터장, 이희락, 조윤하, 정진훈, 임소연, 박민정, 박주연, 조유진, 최혜정, 조진선, 이은주, 김현덕

현장 개요 근무 인원 130명 위치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삼일로 646, 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 6층 주요 업무 건강보험공단 인바운드 상담



타협 없는 정확성, 한계 없는 친절

제니엘시스템 인천지사

한 장의 카드가 고객의 손에 무사히 도착하기 위해서는 책임감 있는 배송과 세심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제니엘시스템에서 가장 많은 배송 물량을 책임지는 인천지사는 이 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정도 배송'을 실천하는 모범 사업장이다.

신뢰를 배송하다

제니엘시스템 인천지사(이하 인천지사)는 인천과 경기 김포·부천 지역의 고객에게 신용카드를 배송하는 핵심 거점이다. 고객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담긴 카드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전달함으로써 카드사와 고객을 연결하는 가장 마지막 단계를 책임지고 있다.

신용카드는 일반적인 물품과 달리 배송 과정 전반에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객의 이름과 카드 번호, 유효기간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물론, 카드사와 고객 사이의 금융 신뢰까지 담겨 있는 특수한 물품이기 때문이다. 분실이나 오배송이 자칫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또한 신용카드 특성상 수령자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배송 과정 자체가 고객 응대 업무의 성격을 띤다. 특히 사전에 고객과 배송 시간을 조율하



고 약속된 시간에 맞춰 방문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하고 친절한 응대가 이뤄져야 한다. 박상현 인천지사장은 '정확성에는 타협이 없고, 친절에는 한계가 없다'라는 자세로 고객을 만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드 한두 장을 더 많이 배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 문제 없이 정확하게 전달하고 고객에게 만족을 드리는 배송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을 저희의 제1원칙으로 삼고 있지요. 고객의 정보를 다루는 일인 만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작은 실수 하나가 고객의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본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안정적인 원 팀의 힘



인천지사의 카드 배송 업무는 이른 새벽부터 시작된다. 오전 3시경 제니엘시스템이 각 카드사로부터 배송 물량을 받아 인천지사에 전달하면, 인천지사에서는 배송 구역별 카드를 분류하는 작업을 시작한다. 이후 150여 명의 배송원들이 각자의 담당 구역으로 흩어져 최적화된 경로를 따라 배송에 나선다. 배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인천지사 차원에서 실시간 배송 현황을

확인하고 미배송 건에 대한 피드백을 진행해, 최대한 당일 배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한다.

원활한 배송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배송원뿐 아니라 내근 근무자의 역할도 중요하다. 인천지사에는 지사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지사장을 비롯해 내근 업무를 관리하는 사무장, 배송 관련 데이터 관리와 각종 행정 지원을 담당하는 2명의 팀장이 근무한다. 업무 공간과 맡은 역할은 다르지만, 이들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유기적으로 협업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배송 물량이 많은 구역은 지사장과 팀장, 배송원으로 구성된 일종의 전담팀을 운영해, 배송의 전문성을 높이고 문제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한다.

지난해 제니엘시스템 차원에서 도입한 '로컬메이트' 제도 역시 인천지사의 '원 팀' 운영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이 제도는 책임감 있고 성실한 배송원에게 일종의 현장관리자 역할을 부여해, 돌발 상황이나 민원 발생 시 배송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인천지사의 진가는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납니다. 명절 전후나 연휴로 인해 물량이 폭증할 때면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현장 지원에 나서고, 비교적 물량이 적은 지역을 담당하는 배송원들을 물량이 많은 지역으로 추가 투입하기도 하죠.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움직여 왔기에 위기 상황도 무사히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적 책임감으로
최대 물량을 책임지다

인천지사는 한 달 기준 약 15만 장, 하루 평균 7,500~8,000장의 신용카드를 고객에게 배송한다. 이는 제니엘시스템 전국 지사 가운데 가장 많은 물량으로, 배송원 규모 역시 전국 최대 수준이다. “배송 지역이 넓다는 특성도 있다”라며 멋쩍게 웃던 박상현 지사장은 이내 곧 그 공을 직원에게 돌렸다.

“사실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고라는 자부심을 가진 직원들의 ‘전문가적 책임감’ 덕분이지.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 그것을 완성하는 것은 사람이잖아요.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움직이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인천지사의 팀워크 역시 또 하나의 소중한 성과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전국 최대 규모의 물량을 책임지는 지사라는 자부심, 그리고 그 성과를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에 대한 신뢰. 인천지사의 내일은 결국 이 두 가지에서 출발한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는 이들과 함께 인천지사는 더욱 신뢰받는 배송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MINI INTERVIEW



왼쪽부터) 박상현 지사장, 박승국 로컬메이트, 송모화 팀장, 서병권 로컬메이트, 박미숙 팀장

‘카드 배송’ 하면 ‘제니엘시스템’이
떠오르도록 고객에게 신뢰받는
인천지사가 되겠습니다.



현장관리자 TALK

제니엘시스템 인천지사 박상현 지사장

“여러분은 지사의 얼굴이자, 가장 든든한 동료입니다. 여러분이 있어 인천지사가 존재합니다. 늘 묵묵히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서로를 믿고 더 좋은 지사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현장 개요 근무 인원 160명(배송원 포함) 위치 인천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96, 401호 주요 업무 신용카드, 티켓, 상품권 등 특송



유해화학물질 행정의 든든한 길잡이

한국환경공단 유해화학물질 콜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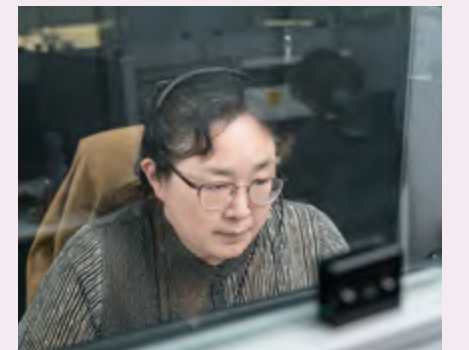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은 안전한 운영을 위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니엘이노베이션이 운영 중인 한국환경공단 유해화학물질 콜센터는 복잡하고 낯선 절차 속에서 기업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복잡한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친환경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환경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기관이다. 공단의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검사와 안전 진단 등을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 관리' 업무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을 보유한 사업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적정하게 설치·관리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공단의 검사와 안전 진단을 받아야 한다. 또한, 매년 어떠한 유해화학물질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신고하는 실적 보고 절차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원

활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곳이 유해화학물질 콜센터다. 이곳에서는 관리자 3명과 상담원 12명 등 총 15명의 제니엘이노베이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의 업무는 상담 내용에 따라 크게 ▲실적 보고 ▲확인 명세 ▲취급 시설 검사 ▲국고 자원 파트로 나뉜다. 유해화학물질 관련 상담은 전화 한 통에도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 잘못된 안내가 업체에 대한 벌금 등 행정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제니엘이노베이션 직원들이 '정확성'과 '신뢰성'을 가장 중요한 상담 원칙으로 삼는 이유라고 유홍주 매니저는 전했다.

“유해화학물질 관련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면 기업에 벌금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신뢰 있게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친절함 안내 역시 빼놓을 수 없는데요, 관련 절차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만큼, 상담원들은 신고 과정에서 각 기업이 접속해야 하는 사이트에 함께 접속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직접 확인하며, 최대한 쉽고 명확하게 안내하는 것을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끈끈한 팀워크와 전폭적인 지원

유해화학물질 콜센터는 지난해 처음 문을 연 이후 2년 연속 제니엘이노베이션이 운영을 맡고 있다. 보통의 콜센터와 다른 점은 핵심 업무인 실적 보고 기간에 맞춰 5월부터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점이다. 올해도 지난 5월 새롭게 콜센터 운영을 시작했지만, 제니엘이노베이션 직원들은 신속하게 업무에 적응하며 안정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 콜센터가 이처럼 빠르게 정착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사람'과 '시스템'의 힘이 있었다. 지난해 콜센터 운영 당시 근무했던 일부 상담원들이 올해도 함께하며

축적된 경험과 업무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눠주고, 중간 관리자인 리더들 역시 적극적인 태도로 운영 초기 혼란을 줄이는데 힘을 보탰다. 업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도 갖추었다. 자주 문의하는 질문과 답변을 Q&A 형태로 정리해 상담 과정에서 활용하고,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내용은 반드시 공단 담당자와 소통하여 공식 답변을 확인한 뒤 안내한다. 홈페이지 등에 게시되는 새로운 정보도 매일 확인해 상담 내용에 반영하고 있다.

“업무 초기에는 낯선 용어와 절차 때문에 상담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존 상담원들의 경험과 지식이 큰 힘이 됐고, 리더들도 빠른 업무 적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습니다. 서로 도우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팀워크는 더욱 단단해졌고, 이러한 협력과 지원이 상담원들에게 안정감을 주며 보람 있는 순간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단기 운영을 넘어 신뢰받는 정규 창구로

제니엘이노베이션 역시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업무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을 먼저 살펴 도움을 제공하고, 직원들의 요청 사항에 빠르게 응답하며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특히 지난해 콜센터 운영 과정에서 축적된 문의 기록과 교육 자료는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상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되었다.

“이러한 지원은 직원들에게 ‘우리가 준비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라는 자신감을 주었고, 동기부여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업체들과 차별화되는 제니엘이노베이션만의 강점이기도 하죠.”

제니엘이노베이션 직원들의 우선적인 목표는 안정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정규 상담 창구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장의 필요에 맞춰 업무 가이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모든 상담원이 다양한 분야의 문의에 대응할



수 있도록 ‘멀티 상담 역량’을 꾸준히 교육하고 있다. 상담원의 업무 역량이 넓어질수록 서비스 품질 역시 한층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포부를 밝히는 유홍주 매니저의 목소리에는 강한 자신감이 묻어났다.

“더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콜센터를 운영해 모든 직원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상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집중하고 싶습니다. 최종적인 목표는 기업들이 유해화학물질 관련 업무를 진행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신뢰받는 상담 창구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안정적인 운영 능력을 보여드리면 현재의 단기 운영을 넘어, 정규 콜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MINI INTERVIEW



현장관리자 TALK

한국환경공단 유해화학물질 콜센터 유홍주 매니저

“모든 동료에게 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덕분에 콜센터가 빠르게 안정될 수 있었습니다. 서로 협력하며 힘이 되는 든든한 동료로 함께 성장해 나갑니다.”

든든한 직원들과 함께
신뢰받는 상담창구로!



왼쪽부터) 유정인, 유홍주 매니저, 김옥이, 문수정, 김지애, 백지선, 홍지연, 허윤영, 박채아, 이성아

현장 개요 근무 인원 15명 위치 서울시 동대문구 난계로 250, 경해빌딩 5층 주요 업무 유해화학물질 관련 상담

함께 만든 변화, 효율성을 높이다

한섬 기흥물류센터

혁신은 어느 한순간 완성되지 않는다. 끊임없는 도전이 모여 크고 작은 변화를 만들고, 그 변화가 차곡차곡 쌓일 때 비로소 혁신이라는 결실로 이어진다. 한섬 기흥물류센터를 책임지는 제니엘휴먼 직원들은 한마음으로 도전하며 변화를 만들어 냈고, 끝내 효율성 향상이라는 값진 성과를 이뤄냈다.



장벽을 허물고 협업의 문화로

한섬 기흥물류센터(이하 기흥물류센터)는 패션 종합 회사 한섬의 ‘타미 힐피거’ 제품을 취급하는 물류센터다. 지상 6층 규모의 건물로, 실사용 면적은 1만 600평에 달한다. 보통의 의류 물류센터가 여러 브랜드의 제품을 함께 관리하는 것과 달리, 기흥물류센터는 타미 힐피거 브랜드만 전담하고 있어 더욱 세심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진다.

제니엘휴먼 직원들은 수불, 검사·완성, 원사, 입고, 오프라인, 온라인, 아웃렛 등 7개 분과로 나뉘어 타미 힐피거 제품의 입고부터 출고, 반품, 보관까지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분과별 담당 업무는 체계적으로 나뉘어 있지만, 어느 하나 독립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7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 각 분과의 업무가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유기적인 업무 체계가 자리 잡기까지 김주민 소장과 제니엘휴먼 직원들의 꾸준한 노력이 있었다. 초기에는 각 분과가 자신들의 고유 업무에 집중하는 분위기가 강해 특정 분과에 업무가 몰리고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트리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이

에 분과의 업무 내용을 공유하고, 상대적으로 업무 여력이 있는 분과가 업무와 인력을 지원하도록 협업 체계를 구축해 왔다.



“과거에는 ‘담당 구역의 일만 잘 처리하면 된다’라는 분위기가 강해, 어느 분과는 한가하고 어느 분과는 일이 몰리는 기형적인 구조가 지속됐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 직원이 ‘원 팀’의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했고, 지금은 어느 때보다 활발한 업무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위기에서 피어난 변화 업무 혁신을 이끈다

기흥물류센터의 운영 전반에는 ‘효율성 증대’라는 핵심 가치가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저이동 고효율’이라는 업무 방침이다.

지난 2023년 코로나19 여파로 물량이 줄고 인원이 대거 감축되자, 김주민 소장은 업무 공정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후, 불필요한 이동 동선을 줄이고 한 번의 이동으로 여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작업 방식을 개선했다.

특히 박스를 들고 이동하는 업무가 많은 입고 검수 작업의 경우, 방치돼 있던 자바라 컨베이어를 활용해 많은 박스를 빠르고 손쉽게 이동할 수 있게 했다. 그 결과, 해당 업무에 투입되는 인력은 기존 대비 5% 줄었고, 검



수량은 10%가량 늘었다. 출고 업무에서도 불합리하게 이뤄지던 행정 작업을 간소화해 1시간가량의 작업 시간을 단축시켰다고 김주민 소장은 소개했다.

“이러한 성과가 가능했던 이유는 직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문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흥물류센터에서는 직원들이 업무 효율화 방안을 제안하면, 머뭇거리지 않고 직접 실행해 보고 시행착오를 통해 더 나은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상명하복식의 문화에서는 창의적인 방안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작은 의견이라도 편하게 말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자율적으로 업무 방식을 바꿀 수 있도록 독려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동행하는 물류센터로 향해

효율성과 함께 중요하게 여기는 또 다른 가치는 안전이다. 김주민 소장은 “안전 관리가 모든 직원의 일상적인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 직원의 안전사고 관리 생활화에 힘쓰고 있다”라고 말했다. 현장 곳곳의 위험 요소를 상시 점검하고, 직원들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놓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것이다. 김주민 소장 역시 한섬의 안전관리자로부터 매주 1시간씩 안전 교육을 받고, 각 분과 담당자들에게 교육 내용을 공유한다. 2021년 제니엘휴먼이 기흥물류센터 운영을 맡은 이후 지금까지 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영해

올 수 있었던 배경이다.

더 나은 센터를 만들기 위한 제니엘휴먼 직원들의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다. 김주민 소장은 전 직원이 ‘멀티플레이어’로 성장하는 기흥물류센터를 만들고 싶다는 다짐을 전했다. 직원들이 단순 반복적인 업무에 머무르지 않고 복합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이를 통해 기흥물류센터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김주민 소장의 궁극적인 바람이다. 여기서 빠질 수 없는 조건은 지금까지 함께해 온 직원들과 ‘같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지금의 직원들과 오랫동안 같이 일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제가 인복이 많은지, 함께 일한 인원이 10~20년 정도 되는 분들이 꽤 계세요. 이분들과의 업무 인연을 30년 이상으로 늘리고 싶은 바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생산성에 대해 고민하고 개선해야겠죠? 저를 비롯해 직원들이 다 함께 공부하고, 발전하는 기흥물류센터를 만드는 것이 저의 최종 목표입니다.”

MINI INTERVIEW



왼쪽부터) 최덕길, 이연행, 박해정, 박해일, 강정숙, 이미정, 오해진, 문혜숙, 김주민 소장

안정적인 운영과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오랜 시간 함께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갑시다.



현장관리자 TALK

한섬 기흥물류센터 김주민 소장

부족한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신 직원분들께 항상 죄송하면서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시기에 저 또한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저를 믿고 같이 해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저의 모든 것을 쏟아붓겠습니다.

현장 개요

근무 인원 65명

위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1766

주요 업무 타이 힐피거 제품 입고출고 등 업무

박인주

제니엘그룹 회장



새로운 시대, 새로운 리더십으로

사랑하는 제니엘그룹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인주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헌신 덕분에 지금의 제니엘이 만들어졌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또 다른 전환점 앞에 서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험과 인력 중심의 운영이 경쟁력이었다면, 앞으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고객의 경영 과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단순 인력 제공 구조에서 벗어나 솔루션·컨설팅·시스템·전문성을 함께 제공하는 방향으로 변신해야 합니다. 데이터는 우리의 핵심 반도체입니다. 고객의 현장을 이해하고, 문제를 예측하고, 사고를 예방하고, 운영을 개선하는 모든 과정에서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 전환의 중심에는 결국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리더는 일을 우연히 하지 않습니다. 준비하고, 계획하고, 점검하고, 분석합니다. 모든 일에 최소 30%는 계획에 투자해야 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구상할 때도 시장 조사, 사례 분석, 자료 수집, 전문가 토론, 내부 검토를 거쳐 실행 계획까지 수립해야 합니다. 실행 시에는 인력·기간·자금·손익 분기점·분기별 성과 계획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완료 후에는 반드시 분석과 피드백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모든 과정에서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리더십은 ‘지시형’이 아닌 ‘코칭형’이어야 합니다. 구성원이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실패해도 다시 시도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과 노력을 함께 인정하는 것이 진짜 리더십입니다.



임원은 미래를 읽고 초격차 전략을 설계하는 전략가, 사업부장은 최소 자원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운영 전문가, 팀장·파트장은 현장 문제를 가장 먼저 발견하고 가장 빠르게 대응하는 실행 책임자여야 합니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직접 가보고, 직접 듣고,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방문 전 체크리스트를 준비하고, 고객사 현황을 조사하고, 현장 직원들의 목소리에서 혁신의 단서를 찾아야 합니다.

디테일도 놓치지 마십시오. 고객의 사소한 불만,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큰 사고를 막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공과 사의 구분이 흐려지면 결국 사고가 발생합니다. 성과뿐 아니라 과정이 정당한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람을 키우는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신입사원은 3개월, 경력직원은 2개월 이내 독립적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면담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이어야 합니다. 팀장은 월 1회, 사업부장은 분기별로 업무의 핵심과 성장 방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채용에서도 분명한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옳고 바름을 판단할 줄 알고, 남 탓보다 자기 책임을 먼저 생각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앞으로의 제니엘은 따뜻한 마음과 강한 실행력, 데이터와 기술로 무장된 지능형 현장 전문가 집단이 되어야 합니다.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신뢰와 시스템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모두가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진정한 리더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변화의 중심에서 새로운 제니엘을 만들어갑시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전환점 앞에서
지능형 현장 전문가
집단으로 도약합시다.**

공공기관 상담의 표준을 꿈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3고객센터 이경선 센터장

한 조직이 흔들림 없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운영 체계와 조직을 이끄는 리더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몸소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3고객센터의 이경선 센터장이다.

이경선 센터장은 20년간 쌓아온 풍부한 고객센터 관리 경험을 토대로 경인3고객센터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다. 이에 더해 직원들과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함께 성장하는 의미'까지 실천 중이다. 올해의 제니엘그룹 명장으로 선정된 이경선 센터장을 만나 우수한 센터를 만드는 운영 철학과 앞으로의 목표를 들어봤다.

Q. 제니엘그룹 명장 선정을 축하드립니다. 우선, 경인3고객센터에서 맡고 계신 역할을 소개해주세요.

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경인3고객센터에서 콜센터 운영과 성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 업무는 단순히 지표를 관리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상담 업무는 시기별로 집중되는 문의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맞춰 필요한 교육을 준비하고 상담 수요를 예측하며 적정 인력을 배치하는 등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Q. 경인3고객센터는 전국 12개 고객센터 가운데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인가요.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성과는 어떤 일이든 적극적으로 함께하는 직원들의 단합력입니다.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직원 130명 모두가 한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문화를 만들어 온 것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센터장으로서 흔들리지 않는 원칙과 기준을 바탕으로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상담 업무의 특성상 각

종 민원은 물론 고객사의 요구와 직원들의 의견이 부딪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센터장이 명확한 중심을 잡고 균형 있게 판단해야 서로 다른 의견이 조화를 이루고 조직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정감이 결국 좋은 성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방적으로 지시하기보다는 직원들의 의견을 먼저 듣는 수평적 소통에 집중해 왔습니다. 직원들이 이뤄낸 성과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과 동기부여를 제공해 긍정적인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인3고객센터가 오늘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준 직원들 덕분이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Q. 공단의 경우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협력사에 대한 평가 기준이 엄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의 업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개인적으로 또는 직원들과 함께 실천 중인 노력이 있으신가요.

공단은 전국 12개 고객센터를 대상으로 분기마다 전화 친절도와 고객 만족도 평가를 진행하는데, 저희 센터는 이 평가에서 꾸준히 최상위권의 성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체적으로 상담 품질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다른 센터에는 없는 별도의 관리 양식을 만들어 응답률과 같은 생산성 지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제도나 복잡한 민원 사례를 빠르게 학습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실시간 사례 공유와 관리자 정기 회의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최근 AI 강의를 들으며,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성과 지표를 확인하고 정리하는 수준을 넘어, 향후 상담 수요와 성과를 예측하고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활용하고 싶습니다.

제니엘그룹은 매년 창립기념일,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업무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거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뛰어난 성과를 창출한 직원에게 '제니엘그룹 명장' 타이틀을 수여한다. 안정적인 센터 운영을 바탕으로 우수한 실적을 거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3고객센터 이경선 센터장이 올해 영광의 주인공 중 한 명이다.



Q. 센터 운영에 있어 제니엘의 지원은 어떤 도움이 됐나요?

제니엘은 센터의 전문성을 믿고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동시에 현장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다른 업체의 경우 정형화된

지표를 맞추는 데 급급하다 보니 현장을 경직되게 만들지만, 제니엘은 현장의 판단을 믿고 맡겨주기 때문에 보다 유연하게 센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타사와 차별화되는 복지 인프라 역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매월 진행하는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직원들의 목소리를 꾸준히 경청하고, 장기근속 직원들을 위한 포상 등 현장에서 헌신해온 직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보답하는 문화가 바로 제니엘만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Q. 제니엘그룹 명장으로선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신가요.

단기적으로는 직원들이 더욱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업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공공기관 콜센터에서 쌓아온 저의 경험과 노하우를 우리 조직의 공동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이나 운영 체계가 후배들

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이들이 전문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훗날 제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직을 지탱하는 든든한 가이드'로 기억될 수 있다면 더없이 보람 있을 것 같습니다.

Q. 차기 제니엘그룹 명장을 꿈꾸는 제니엘인들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든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의 성실함이 모여 전문성이 된다'라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눈에 띄는 변화가 없더라도, 여러분이 현장에서 쌓아가고 있는 하루하루의 경험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조금해하기보다는 스스로를 믿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기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누군가의 롤모델이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저 역시 여러분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함께 걸겠습니다.

제니엘그룹 우수사원을 소개합니다!

뛰어난 성과로 제니엘그룹을 빛낸
2026년 2분기 우수 인재를 소개합니다.

제니엘그룹은 직원 소속감과 성취감을 높이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매월 1일에 뛰어난 성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직원을 우수사원으로 선정·발표해 격려한다. 선정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제니엘그룹 복지물 '월샵'에서 사용 가능한 5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제공한다. 우수사원 선발 기준은 제니엘그룹의 3가지 핵심정신 '도전하는 나', '책임지는 나', '함께하는 나'를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가치를 실천하며 모범을 보이는 직원이 제니엘그룹의 자부심이 된다. 협력 속에 책임을 다해 최고의 성과를 이뤄내는 직원이라면 누구나 우수사원이 될 수 있다. 2026년 2분기 제니엘그룹의 우수사원으로 선정된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 제니엘그룹은 항상 직원들의 성공을 응원하며 그들이 더 큰 성과를 이루도록 지원할 것이다.



우수사원

컨택터사업부

손정민 건강보험공단 경인3고객센터
홍금숙 국민은행 대출살행센터
황명숙 국민은행 법원문서센터

제니엘메디컬

김태경 의정부 을지대학교병원 환자이송

제조사업부

노정숙 두산전자 김천공장 PPG
박현석 대한항공사업소 소방대
황인진 아모레퍼시픽



우수사원

HR-Biz사업부

손혜정 천안일자리센터
송세라 신성통상 탑텐
유정호 삼성전자 전자랜드

컨택터사업부

김성연 신한은행 여신센터
김안나 신한은행 여신센터
추보윤 신한은행 여신센터

제니엘메디컬

김숙영 일산차병원
이경목 분당차병원 응급원무

제조사업부

강대규 코스비전
김성수 세방전지 광주공장
박지영 신한카드 CRM센터



우수사원

컨택터사업부

김예지 신한라이프 콜센터
윤수화 신한라이프 콜센터
한아름 신한라이프 콜센터

제조사업부

고의현 두산전자 익산공장
김민구 대한항공 테크센터
김병서 아모레퍼시픽 대전 공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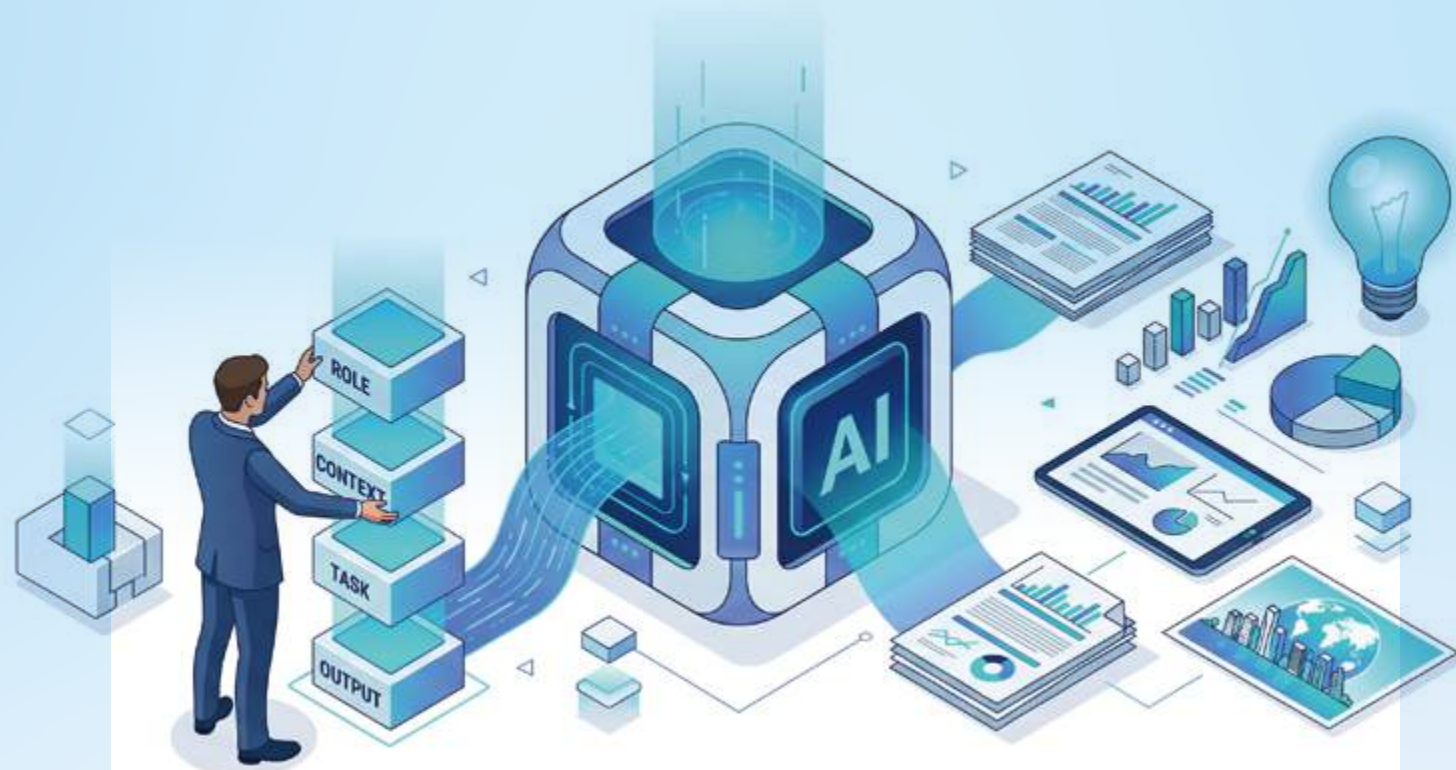
AI 시대 ‘일잘러’의 기본기

좋은 프롬프트 작성법

AI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기대와 다른 엉뚱한 답변에 실망한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것이다. 문제는 AI의 능력이 아니라 질문 방식에 있을 수 있다.

AI는 사람의 의도를 알아서 파악하는 만능 해결사가 아니라, 분명한 지시를 받을 때 비로소 제 역할을 하는 업무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AI 시대의 진정한 ‘일잘러’로 거듭나기 위해, 초보자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좋은 프롬프트 작성법을 알아보자.



명확한 역할 부여하기

AI를 활용할 때 원하는 답변을 얻기 위한 첫걸음은 자신의 목적에 맞는 명확한 지시를 내리는 것이다. 이때 AI에게 입력하는 질문이나 명령을 ‘프롬프트’라고 부른다. 좋은 프롬프트에는 ‘무엇을, 왜, 누구에게, 어떤 방식과 형식으로 전달할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담겨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역할

▲배경 ▲임무 ▲조건 등 네 가지 요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AI에게 “너는 지금부터 누구야”라는 식으로 역할을 부여하면, AI는 요청에 맞는 관점과 말투로 답변의 방향을 좁힐 수 있다. 예를 들어, 단순히 “홍보 문구를 써줘”라고 하는 것보다 “너는 3년 차 마케터야”라고 역할을 정해주면, AI는 보다

실무적인 표현과 구조를 고려해 답변을 구성하게 된다. 여기에 이 업무가 왜 필요한지, 결과물은 어디에 쓰이는지와 같이 배경을 설명하면 목적에 더 부합하는 답변을 얻을 수 있다.

임무·조건을 구체적으로

임무와 조건도 구체적일수록 좋다. “자료의 핵심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해 줘”, “300자 이내로 비즈니스 문서 형식에 맞춰 작성해 줘”처럼 수행할 일과 결과물의 분량, 형식을 명확히 지정하면 답변의 완성도는 한층 높아진다. 같은 내용이라도 보고용, 대외 홍보용, 내부 공유용 등 그 목적에 따라 표현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결과물을 사용할 상황과 독자, 원하는 문체를 함께 알려주는 것이 좋다. AI 특유의 그럴듯한 거짓 말을 줄이고 싶다면 “답변의 출처를 함께 제시하고, 근거가 부족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모른다’라고 답해줘”라는 안전장치를 덧붙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만, AI가 제시한 출처와 사실관계가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가 직접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빌드업’하며 완성도 높이기

좋은 프롬프트는 단 한 번의 질문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답변을 확인하고 보완해 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첫 번째 답변을 받은 뒤, “이 예시와 같은 형식으로 바꿔줘”, “빠진 내용을 보완해 줘”와 같이 구체적인 수정 요청을 이어가면 원하는 결과물에 한층 가까워질 수 있다. 단계별로 일을 나누어 맡기는 방식도 효과적이다. 처음부터 “기획안을 써줘”라고 요청하기보다 “먼저 핵심 아이디어를 5개 제안해 줘”, “그중 1번을 중심으로 목차를 짜줘”, “이 목차를 바탕으로 도입부를 작성해 줘”와 같이 순서를 나눠 요구하면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질문의 방법이 결과를 바꾼다



소중한 생명을 구한 ‘안전보건 우수사원’을 소개합니다.

안전보건 활동 우수사원 ‘공로상’ 시상

제니엘그룹은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안전보건 활동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안전보건 활동 우수사원 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공로상의 주인공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응급 상황에서 발 빠른 대처로 소중한 생명을 구한 김춘식 사원이다. 제니엘그룹은 김춘식 사원의 공로를 인정해 상장과 함께 소정의 상금을 수여했다.



신속한 심폐소생술(CPR)로 인명 구조한 아모레퍼시픽 대전공장 김춘식 사원



아모레퍼시픽 대전공장, 신속한 응급처치로 인명 보호

- | | |
|----------|--|
| 1. 사고 장소 | 아모레퍼시픽 대전공장 |
| 2. 사고 일시 | 2026년 4월 7일 오전 9시경 |
| 3. 사고 경위 | 외부 화물차 기사가 차량에 탑승하던 중 미끄러져 의식을 잃음 |
| 4. 조치 과정 | 의식을 잃은 화물차 기사를 발견한 김춘식 사원이 즉시 동료에게 119 신고를 요청하고, 심폐소생술 실시 |
| 5. 조치 결과 | 김춘식 사원의 신속한 초기 응급처치 덕분에 화물차 기사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인계 |
| 6. 의의 | 김춘식 사원의 신속하고 침착한 대처는 사업장 내 인명 보호에 크게 기여. 고객사인 아모레퍼시픽 대전공장 측은 김춘식 사원의 공로를 높이 평가해 제니엘그룹에 포상 요청 |

ZENIEL NEWS



제니엘그룹, ‘데이터 기반’ 채용 관리 솔루션 구축
제니엘그룹이 채용 관리 시스템 전문 기업 ‘두들린’과 협업해, 데이터 기반 채용 관리 솔루션을 구축했다.
채용 관리 솔루션은 채용 공고 등록부터 서류 접수, 면접 일정 조율, 평가 관리, 합격자 처리까지 채용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지원자의 직무 이력, 역량 데이터, 지원 경로 등을 일원화된 데이터베이스로 축적·분석해, 단순 채용 연결을 넘어 인재의 강점과 사업장 수요를 정밀하게 매칭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또한, 지원자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누적·관리함으로써 특정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필요한 시점에 신속하게 연결할 수 있다.



제니엘, 산업현장 안전관리 패키지 ‘ZEN-i Plus’ 사업 확대
제니엘이 인공지능(AI)과 5G 네트워크를 결합한 산업현장 안전관리 솔루션 패키지 ‘ZEN-i Plus’ 사업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ZEN-i Plus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강화된 안전 경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서비스로, 세 가지 핵심 모듈로 구성된다. 주요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탐지해 관리자에게 즉시 알림을 제공하는 ‘AI CCTV 관제 솔루션’, 근로자의 건강 이상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도록 지원하는 ‘AI 비접촉 생체인식 솔루션’, 현장 장비와 유기적으로 연결해 스마트 현장 구축을 지원하는 ‘5G 특화망’ 등이다. 각 모듈은 고객사 현장 상황에 맞게 단독 또는 결합 패키지 형태로 도입할 수 있다.
제니엘은 현재 나이키 코리아를 비롯한 제조·물류 분야 주요 기업들과 ZEN-i Plus 도입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거점 고객사를 확보해 안전관리 솔루션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제니엘, 에이아이세스·부들정보시스템과 MOU 체결
제니엘은 지난 4월 23일 에이아이세스·부들정보시스템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각사가 보유한 사업 인프라와 역량을 결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급변하는 IT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 HR 전환 및 채용 협력 ▲공동 영업 비즈니스 모델 발굴 ▲글로벌 시장 진출 및 마케팅 협력 ▲기술 교류 및 교육 협력 등이다. 향후 각사는 협력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국가생산성대회
금탑산업훈장



아웃소싱 제모스가 이릅니다



ZEMOS.

Zeniel Mobile System

(주)제니엘
www.zeniel.com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402 제니엘빌딩
대표전화 1588-1581 | 사업문의 02-580-0116